

# 신차효과에 내수시장 '온기'... 완성차 업계 연말 기대감 ↑

전략형 신차에 내수 판매량 급증  
카니발, 국내 시장 최다 판매 기록  
글로벌 시장 경기 회복은 지지부진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간 최대 성수기인 4분기를 맞아 내수시장서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올 하반기 국내 완성차 업계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은 물론 전략형 신차를 대거 선보이며 판매량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됐던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기는 여전히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0월 국내 6만5669대, 해외 32만278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8만5947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1.2% 증가, 해외 판매는 5.2% 감소한 수치다.

내수 시장은 세단과 RV 등 전체적으로 신형 모델들이 판매를 이끌고 있다. 세단은 그랜저가 1만926대 판매됐으며 RV는 팰리세이드 6514대, 싼타페 4003대, 투싼 3063대 등 총 1만7028대가 팔렸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가 5268대 팔리며 판매를 이끌었다.

해외시장 판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



기아차 4세대 카니발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르노삼성 QM6

한 수요 위축에 따른 해외 공장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현대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판매 정상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완성차 26만5714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국내 시장에서 4만8009대, 해외 시장에서 21만7705대를 판매하며 각각 1.8%, 7.0% 증가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카니발이었다. 카니발은 1만2093대가 팔리며 지난달에 이어 기아차 월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카니발을 포함한 RV 모델 판매는 쏘렌토 7261대, 셀토스 3344대 등 총 2만7119대를 기록했다. 승용 세단은 K5 5459대, 모닝 2593대, 레이 2501대 등 총 1만4948대가 판

매됐다.

해외 시장에서는 3만4386대를 기록한 스포티지가 최다 판매 모델에 올랐고 셀토스가 2만7478대, K3(포르테)가 2만4029대로 뒤를 이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총 3만1391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대비(3만158대) 4.1% 증가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한 7064대를 기록했다.

쉐보레 스파크가 2582대 판매되며 내수 실적을 이끌었고, 1774대 팔린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뒤를 이었다.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한 2만4327대를 기록해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트레일블레이저가 형제 차종인 뷰의 양코르GX와 함께 수출(총 1만3855대 수출)에서

도 실적 개선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다. 쉐보레 트레블스와 콜로라도는 각각 301대, 515대 판매됐다.

르노삼성은 전년 동월대비 판매량 감소세를 지속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동월대비 49.2% 감소한 7533대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량은 7141대로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했다. 해외 판매는 392대에 그치며 전년 동기대비 93.9% 급감했다. 내수에서는 4323대가 판매된 'QM6'의 인기에 힘입어 감소폭을 다소 줄였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이어갔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 7612대, 수출 2585대를 포함 총 1만197대를 판매했다. 이러한 실적은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에 1만대를 돌파하며 올해 월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또 전월 대비로는 3.7% 증

가한 것으로 스페셜 모델 및 신 모델 출시와 함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올해 월 판매실적으로는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판매가 증가했다.

특히 올 뉴 렉스턴 정식 출시가 오는 4일로 예정된 만큼 하반기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도 올해 월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59%, 전년 동월 대비로도 20.2%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기록했다.

쌍용차는 앞으로도 언택트 마케팅 등 비대면 채널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크 재 정비 및 제품 믹스 다각화를 통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장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언택트 이끈 脫통신·5G... 이통3사 체면 살려

SKT 전년동기비 매출 2.89% ↑  
KT 자회사 부진에 매출·영업익 ↓  
LGU+ 영업이익 46.6% 급증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도 3·4분기에 대체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 등 5세대(5G) 이동통신 전략 스마트폰의 출시가 5G 가입자 증가를 이끌고,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이 낮아져 안정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동통신 3사의 탈통신 행보도 향후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여파에도...이통3사 3·4분기 실적 '선방'

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일, KT는 6일 올 3·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예상 영업익은 8975억원으로 추산되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각 사별로 보면, KT의 3·4분기 매출은 6조819억원, 영업이익은 30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2%, 1.65%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5G 가입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에스테이트 등 자회사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늘어난 자급제비 비중과 유선전화 매출액 감소가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건비 등 일시적 비용도 반영될 전망

이다. SK텔레콤의 3·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89% 증가한 4조6900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19.68% 늘어난 361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티브로드 인수 효과가 반영되고, 자회사 실적 개선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도 보안, 커머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회사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출시해 영업이익 상승을 이끌 전망이다. 최근에는 'T맵'을 분할해 '모빌리티 전문 기업'을 연내 설립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3·4분기 3조3735억원의 매출과 22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99%, 46.64% 늘어난 기록이다. LG유플러스의 호실적은 자회사 LG헬로비전과의 시너지로 알뜰폰(MVN), 사물인터넷(M2M) 가입자 증가 등에서 기인할 것으로 분석됐다.

◆5G 가입자, 1000만 돌파 초읽기  
3·4분기 이동통신 실적 선방의 주요 요인은 5G 가입자가 늘어나고, 효율적인 마케팅 집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924만8865명으로, 전월보다 59만643명(6.8%) 늘었다. 지난 8월 말 800만명을 돌파한 지 한 달 만에 900만명을 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애플의 첫 5G 단말 '아이폰12' 시리즈의 출시로 5G 가입자는 연내 10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는 성장기에 접어드는 5G를 기반으로 통신뿐 아니라 언택트(비대면) 사업 관련 비통신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다양한 수익화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신에서 비통신 기업으로 진화하겠다고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디지털-X 서밋 2020'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뉴 ICT'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명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도 케이블 TV LG헬로비전을 인수해 미디어 플랫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김흥식 연구원은 "2021년 이후에는 사실상 신규 비즈니스를 통해 통신사들의 매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홀로그램, 자율차, 웨어러블 등 B2C는 물론 스마트팩토리, 드론, 원격진료와 같이 B2B와 B2G 영역에서 5G 신규 매출이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GS칼텍스 여수 공장 전경.

## 코로나 장기화에 정유업계 희비 교차

대부분 정유사 이번 분기 적자  
현대오일뱅크 두 분기 연속 흑자

정유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엇갈린 실적을 내놓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최근 잇따라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가 공시했고, GS칼텍스는 오는 10일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부분 정유사는 이번 분기 또한 적자를 면치 못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는 유일하게 두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정유업계에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내 주요 정유 4사는 올 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정유사별을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각각 ▲SK이노베이션 2조2149억원 ▲에쓰오일 1조1716억원 ▲GS칼텍스 1조1651억원 ▲현대오일뱅크 5500억원 등이다. 정유 4사의 상반기 적자만 포함

약5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4개사 포함 영업이익인 3조910억원보다 큰 손실을 두 분기 만에 본 것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은 올해 세 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8조4192억원, 영업손실 290억원을 기록했다.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배터리 사업에서 아직 흑자 전환을 이루지 못했고, 석유 및 화학 사업의 시황마저 안 좋아지면서 타격이 컸다.

에쓰오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에쓰오일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조8992억원, 영업손실 93억원으로 역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오일뱅크는 정유 4사 중 유일하게 두 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3분기 매출 3조3277억원, 영업이익 352억원을 기록했고, 지난 2분기에도 매출 2조5517억원, 영업이익 132억원을 낸 바 있다. 업계에서는 비정유 사업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